



가톨릭마산

제2371호 2019년 8월 25일
연중 제21주일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하느님 나라 들어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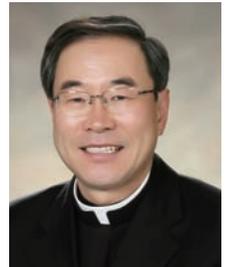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 가운데서 천당에 들어가기 쉬운 계절은 언제일까요? 답은 여름입니다. 더워서 문이란 문은 모두 열어놓고 있어서 그렇다는 아재 개그가 있었습니 다. 그러나 이제는 에어컨 때문에 문과 모든 창문까지 닫고 사니 옛말이 되었습니다. 예 수님께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적을까 염려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고 이르셨습니다.(루카 13,24)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동굴 위를 제대로 삼고 웅대한 성당이 세워져 있습 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모후 헬레나 성녀가 봉헌한 ‘예수 성탄 성당’입니다. 그런데 입구 문이 높이 1m, 너비 40cm 로 아주 작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지었는데 언젠가 페르시아 군대가 말을 탄 채 들어온 후에 그렇게 막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겼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겸손한 태도로 의롭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의가 곳곳에서 예사로운 게 현실입니다. 신자들 이 의로움을 실천하며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시련도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참으로 좁다 하겠습니다. 불의를 멀리하고 시련을 하느님 사랑의 훈육으로 여겨 잘 견디어 냅시다. 나중에는 그것으로 평화와 의로 움의 열매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히브 12,11)

올림픽 등 각종 운동 경기에서 메달을 따고 감격에 차 눈물로 환호하는 장면을 종종 봅니다. 그 메달은 엄청난 땀의 결실입니다. 운동선수, 농부, 사업가, 학자, 예술가 등이 피나는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냅니다. 천국 메달을 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어떠해야 할까요?

한편, 세례받고 교우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고, 또 성경과 교리 말씀을 들었다고, 또는 교회에서 어 떤 직책을 맡았다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교회를 사교의 장소나 사회단체처럼 여긴다 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루카 13,26-27) 복음으로 나의 삶을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이 사회가 나날이 하느님 나라가 되게 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세 려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애써 찾아야 할 좁은 문이 이 길입니다.



강윤철 요한 보스코 신부 | 중동본당 주임

아멘.

주일 진례

입 당 송 주님, 귀를 기울이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 종을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본 기 도 하느님, 신자들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갈망하며,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도, 참기쁨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제 1 독 서 이사 66,18-21

화 답 송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제 2 독 서 히브 12,5-7,11-13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복 음 루카 13,22-30

영성체 송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하느님의 어린양 2. 신학생들에게

지난밤 이사야가 내게 왔었소. 그가 가진 예언서, 거기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짊어졌으며, 우리의 죄 때문에 으스러졌다. 그러나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모두에게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양처럼, 아무런 저항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유다, 내가 그 양이오. 죽어야 할 그 사람이오. / 죽어요?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란 겁니까? 그럴 수 없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왜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당신이 필요해요! / 일생동안 나를 따라다닌 그림자가 있었소. 그게 뭔지 아시오? 십자가요.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하고, ‘기꺼이’ 죽어야 합니다. <영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유다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구원하는 이가 죽어야 하죠? 큰 권능으로, 살아서, 세상의 악을 쓸어버리고 군림하며, 백성을 구해내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건설하셔야 할 분이, 그렇게 우러러 보여야 할 분이, 왜 비참하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어야 하죠? 메시아가 그런 거라면, 내가 왜 여기 당신 곁에 있어야 하고 당신의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제직은 고귀합니다. 당신의 전부를 내어놓았기에 그렇습니다. 당신께서 높여지시고자 한 게 아니라, 온전히 내던지신 그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의젓하게 보이고자 용쓰는 것보다, 그분의 헌신과 사랑을 함께 배워갑시다. 그 고귀한 직 앞에 우리들 스스로가 겸손되어 고개 숙여야만, 그 사제직을 조금이나마 감당해 낼 수 있게 됩니다. 잘난 척, 높은 척, 행여 하지 맙시다.(부모님들도요.) 그분 삶을 배워가는 아름다운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작고 복된 제 맘에 예수님 오세요. 잠자는 아가보다 저는 더 복되어요.

정성되어 모시고자 가꾼 이 마음. 거룩한 그 몸으로 더욱 복되집니다. <어린이 성가, 예수님 오세요>

2019-2학기 교구 『여정』 성경 공부 일정

- 개강일 : 2019년 9월 첫주
- 수강료 : 일반여정-2만 원, 은빛여정-1만 원(교재비 별도)
- 문 의 : 성경부 055)249-7025~6

마산지구			창원지구			진주시구		
본 당	개 강 일	과 목	본 당	개 강 일	과 목	본 당	개 강 일	과 목
구 암 동	9. 2(월) 20:00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웅 잡	9. 5(목) 20:10	요한 복음서	옥 봉 동	9. 4(수) 19:30	예언서
호 계	9. 3(화) 10:00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대 방 동	9. 3(화) 10:40	바오로 서간	문 산	9. 2(월) 19:30	시서와 지혜서
월 영	9. 3(화) 10:00	바오로 서간	사 립 동	9. 5(목) 20:10	오경 2	칠 암 동	9. 3(화) 10:00	시서와 지혜서
교 구	9.10(화) 10:00	예언서	덕 산 동	9. 3(화) 10:00	오경 2	사 천	9. 6(금) 10:30	마태오 복음서
양 덕 동	9. 2(월) 19:30	오경 2		9. 2(월) 19:30	마르코 복음서		9. 6(금) 19:30	마태오 복음서
삼 계	9. 3(화) 10:00	시서와 지혜서	사 파 동	9. 2(월) 20:00	요한 복음서	봉 곡 동	9. 4(수) 19:30	마태오 복음서
월 남 동	9. 5(목) 20:00	오경 2	가 음 동	9. 5(목) 10:00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산 청	9. 4(수) 10:30	은빛(지혜여정 2)
삼 계	9. 6(금) 20:00	역사서 2		9. 2(월) 19:30	오경 2	봉 곡 동	9. 3(화) 10:00	은빛(지혜여정 4)
창 념	9. 4(수) 19:30	마태오 복음서	명 서 동	9. 5(목) 12:40	은빛(지혜여정 2)	거제지구·복지시설		
완 월 동	9. 3(화) 20:00	마태오 복음서	여 좌 동	9. 3(화) 10:00	은빛(탈출기)	장 평	9. 6(금) 10:30	오경 1
	9. 5(목) 10:30	마태오 복음서	덕 산 동	9. 5(목) 10:30	은빛(지혜여정 2)		9. 6(금) 19:30	마태오 복음서
산 호 동	9. 5(목) 20:15	예언서	진주시구			대 건	9. 6(금) 11:10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의 령	9. 6(금) 10:30	은빛(요한 복음서)	가 좌 동	9. 4(수) 19:30	요한 복음서	북 신 동	9. 5(목) 10:00	마르코 복음서
상 남 동	9. 4(수) 14:00	은빛(지혜여정 3)	하 대 동	9. 5(목) 10:00	마르코 복음서	지 세 포	9. 4(수) 19:30	바오로 서간
양 덕 동	9. 3(화) 10:00	은빛(요한 복음서)	산 청	9. 6(금) 19:30	요한 복음서	태 평	9. 6(금) 19:30	가톨릭서간·요한 묵시록
칠 원	9. 6(금) 10:00	은빛(호세아서·예제키엘서)	상 평 동	9. 5(목) 20:00	요한 복음서	장 승 포	9. 4(수) 19:30	오경 2
창원지구			함 양	9. 4(수) 19:30	바오로 서간	마산교도소	9. 4(수) 13:30	마르코 복음서
양 곡	9. 6(금) 10:40	마르코 복음서	금 산	9. 3(화) 10:00	마태오 복음서	대 건	9. 5(목) 10:00	은빛(창세기)
반 송	9. 3(화) 10:40	역사서 1	신 안 동	9. 4(수) 20:10	바오로 서간	작은예수회	9. 5(목) 10:00	은빛(창세기)
	9. 4(수) 10:30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창원이주민센터 여름캠프

마산교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유학생 등)들이 남해상주은모래비치로 1박2일 (7/27~28 : 베트남공동체, 8/3~4: 영어권 공동체) 여름캠프를 다녀왔다. 베트남, 필리핀, 프랑스, 페루, 인도네시아, 캐나다, 네팔에서 온 280여 명이 참여하였다. 짧은 일정이지만 게임, 파티, 독일마을 방문, 미사를 함께하며 타국에서의 지친 생활을 서로 위로하고 삶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공모

사목국에서는 10월 특별 전교의 달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사연을 공모합니다. 기쁨과 온유함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성덕의 모범이 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명단은 10월 교구보를 통해 안내하고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릴 예정이며, 선정된 사연은 2020년도 사순시기 묵상집에 실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모내용 : 신실한 믿음으로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분 량 : A4 1장 이내(글씨크기 12포인트 기준)

접수마감 : 9월 27일(금)

접수방법 : 1. 이메일: samok2@cathms.or.kr(제목: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공모)
2. 우편: 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마산교구청 사목국(봉투 겉면 표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공모)

문 의 : 사목국 055·249·7021~3

4학년 큰딸과 잘 지내고 싶어요

요즘 초등학교 4학년 큰딸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 정돈이 안 되고, 자기 물건을 잘 잃어버리고, 노는 것만 좋아하고, 학원 지각은 다반사이고, 단 30분을 지그시 앉아있질 못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하는 말을 귀담아듣지 않습니다. “하기 싫어요”, “조금 있다 할게요.” 한번 무엇에 꽃히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제 4학년이 되어서 2살 아래 남동생을 챙겨주길 바랐는데 오히려 동생이 누나를 챙깁니다. 그러니 늘 제 칭찬은 아들에게만 돌아갑니다. 제 모습을 본 남편은 제가 딸에게는 독재형 엄마, 아들에게는 허용형 엄마래요. 제가 딸에게 자주 하는 말은 “엄마는 너 만할 때” “도대체 이해가 안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가족의 밥을 지었습니다. 무능했던 아버지 대신 생계를 책임졌던 엄마를 도와 동생들의 양육자 역할을 했습니다. 중고시절엔 하교하고 엄마를 도와 가게에서 일했고,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회사에 취직해서 남동생의 대학 학비를 댔습니다. 저는 정말 대학에 가고 싶었고 공부도 마음껏 하고 싶었습니다. 학창 시절 못해 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학원 수강, 여행, 영화관, 백화점 쇼핑 등등. 그러나 저는 불평이나 투정, 어리광은 한 번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토를 달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딸을 보면 알밋고 화가 납니다.

며칠 전 딸과 함께 걸스카우트 행사를 위해 준비물을 챙기다가 폭발하듯이 화를 냈습니다. 흥분하고 들떠 있는 딸이 알미워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짜증을 내며 결국 제 생각대로 해버렸습니다. 들떠서 재잘거리던 딸은 아주 풀이 죽은 모습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찼는지 모릅니다. 늘 이런 식입니다. 제가 많이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잘 지내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딸 때문에 많이 지치셨군요. 자신이 지내온 시간과 비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하겠네요. 11살부터 집안일과 동생 돌보기를 했다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은 당연히 억압했겠지요. 늘 어른의 기대에 부응하는 철든 아이의 모습이었군요.

이렇게 어렸을 때 어른처럼 행동해 온 아이가 막상 성인이 되어서는 감정 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를 ‘성인 아이’라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억압했던 감정이 올라와 현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유치한 행동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걸스카우트 사건을 예로 들면, 들떠서 보채는 딸을 보면서 “난 지금 퇴근해서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어째 너는 노는 티령만 계속하니?”라는 생각과 함께 부러움, 질투심, 알미움의 감정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딸과 잘 지내고 싶다는 평소 생각과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대하고 싶다는 마음은 순식간에 유치한 아이의 감정 뒤에 숨어버립니다.

감정을 잘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수술로 시력을 회복했을 때, 잘 보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루는 방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자기 재양육’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양육자로부터 충분히 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다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기 재양육’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세요. 자신만을 위하여 영화도 보고, 예쁜 손수건도 사고, 카페에서 한 잔의 커피로 사치도 누리봅니다. 매주 2시간 정도 자신을 위한 기분 좋은 시간을 지속해서 가집니다. 자신을 마치 새로 입양한 아이 취급하며, 사랑으로 보호하며 돈을 들여 가르칩니다. 우리 딸을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잘 돌보고 싶은 것 맞지요? 가장 큰 정서적 돌봄은 속사정을 물어 봐주고,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안 하고 싶은 이유가 있겠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이유가 있겠지?’ 엄마의 방식이 아닌 딸의 방식을 존중하세요. 엄마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면, 그 딸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숙녀로 성장할 겁니다.

신학생

개학 인사

+ 찬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신학생 대표 김동윤 율리아노 부제입니다.

21명의 교구 신학생들은 80여 일간의 여름방학을 무사히 마치고 신학교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방학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방학 기간에도 저희 신학생들은 교우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 덕분에 아무런 사고 없이 여름방학을 잘 보내고 학교로 돌아옵니다.

학교 학장신부님께서 “기도로 진 빛은 기도로 갚을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문득 기억이 납니다. 저희 신학생들은 교우 여러분들에게 매일 기도의 빛을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생들이 교우 여러분들에게 진 기도의 빛을 다 갚을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들을 기도 중에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양육되어 가는 저희 신학생들을 사랑하고 기도해주시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21명의 교구 신학생들은 이번 2학기도 잘 지내고 다음 방학 때는 지금보다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윤 율리아노
교구 대표 부제

성소캠프(예비신학생하계연수와 여름학교)



교구내 예비신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소캠프(예신하계연수와 여름학교)'가 성소국과 청소년국의 공동 주관으로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창녕 온누리 청소년수련원에서 있었다. 이번 성소캠프에는 140여 명의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구 20명의 신학생들이 함께하였으며, 성소국과 청소년국의 공동 주관으로 마련되어 더욱 풍성한 장이 마련되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학생들은 “신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즐거웠고, 성소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하였다.

■ 사제평의회 ■

일시 : 8월 27일(화) 10:30
장소 : 교구청

교구·본당

■ 노인학교 봉사자 연수

일시 : 8월 26일(월) 10:00
장소 : 교구청
문의 : 사목국 055·249·7021~3

■ 공소협의회 회장단 모임

일시 : 8월 29일(목) 10:30
장소 : 교구청
문의 : 사목국 055·249·7021~3

■ 청년성서 44차 탈출기 연수

일시 : 8월 30일(금)~9월 1일(일)
장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 청년부 055·249·7065

■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수화미사 안내

일시 : 9월 1일(주일) 15:00
장소 : 남성동성당
문의 : 농아선교회 011·9207·8856

■ 병원 미사 안내

마산 : 삼성병원 매주(금) 18:00
본관 2층 1회의실(접수·수납 창구 맞은편)
창원 : 파티마병원 매주(수) 16:00
매(주일) 09:30 7층 성당
창원병원 매주(수) 18:00 지하 1층
경상대병원 매주(토) 15:00 천주교 원목실
진주 : 경상대병원 매주(토) 16:00
암센터 지하1층 천주교 원목실

■ 2019년 전례와 꽃예술학교 수강생 모집

기간 : 9월 2일(월)~12월 9일(월) 15주
장소 : 팔용동성당
기초과정 : 매주(월) 10:00
대상 : 관심있는 누구나(나이, 학력, 종교 무)
수강료 : 20만 원(재료비 별도)
봉사자과정 : 매주(월) 13:30
대상 : 기초과정 수료자, 민간자격증 고급 이상 소지, 본당 제대꽃 봉사 5년 이상 중 1가지 해당
수강료 : 30만 원(재료비 별도)
최고과정 : 매주(월) 10:00
대상 : 봉사자과정 수료자, 본당 제대꽃 봉사 5년 이상으로 민간자격증 사범 2급 이상 취득자
수강료 : 35만 원(재료비 별도)
심화과정 : 매주(월) 13:30
대상 : 최고과정 수료자
수강료 : 40만 원(재료비 별도)
문의 : 성소국 055·249·7061
담당자 010·9088·4864

■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 첫째 주(화) 10:30 교구청
창원 : 첫째 주(목) 20:10 사파동성당
 첫째 주(금) 10:30 대방동성당
진해 : 첫째 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 첫째 주(월) 10:00 하대동
문의 : 윤지령(요세파나) 010·4490·6996

■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 매일 첫째 주(토)
장소 :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통영) 대건성당 10:30
문의 : 푸른군대 회장 010·4848·7106

■ 창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봉사자 모집

일시 : 매일 첫주(월) 10:00~14:00
장소 : 창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
문의 : 055·237·6487

위원회·기관·단체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전국 하계연수

일시 : 8월 26일(월)~27일(화) 1박2일
장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 010·3903·8234

■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연수

일시 : 8월 30일(금)~31일(토) 1박2일
장소 : 여수일대
문의 : 055·261·8201

■ 198차 ME 주말 안내(2박 3일)

일시 : 8월 30일(금)19:00~9월 1일(주일) 17:00
장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 김주호(요아킴)·조정선(안나) 부부
010·7744·1551, 010·2736·3496
● 20차 쉐니주말 : 11월 9일(금)~10일(주일)
● 199차 ME 주말 : 11월 15일(금)~17일(주일)

수도회

■ 성경 거룩한 독서 피정

일시 : 9월 21일~22일, 9월 28일~29일,
10월 12일~13일, 10월 19일~20일,
10월 26일~27일, 11월 16일~17일,
11월 23일~24일 12월 14일~15일,
12월 21일~22일 (토 14:00~주일 14:00)
장소 : 고성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피정비 : 7만5천원
피정동반 및 강의 : 유덕현 야고보 아바스,
최재용 세바스티아노 원장
신청 : 010·2816·1986

■ 성소자 모임 (개별방문 상시접수)

일시 : 9월 28~29일, 10월 19일~20일,
11월 23일~24일, 12월 24일~25일
장소 : 고성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 미카엘 수사 010·8798·2986

바로잡습니다

가톨릭마산 2019년 7월 28일자 6면 <기억할 사제> 알림에서 “장병화 요셉 신부”라고 잘못 표기된 것을 “장병화 요셉 주교”로 바로 잡습니다.
장병화 요셉 주교는 마산교구 제2대 교구장이며 1990년 8월 3일 선종하셨습니다.

진영삼성안과

대학병원급 장비보유
백내장·녹내장 전문병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장동로 3 (경남빌딩 2층)
진영소방서 맞은편 055.724.0988
원장 임영진 (미카엘)

savin 에 중, 예 고 음 대 / 입 시 반
취 미 일 반 이 태 리 유 학 소 그룹 (3명)
성악 스튜디오
T.070. 4384. 8730
blog.naver.com/franz32
조 현 울 프란체스코
마산회원구 양덕1동 주민센터 맞은편 2층

길모퉁이산티아고순례단모집

길순례단 | 9/6~9/15 (10일, 298만원)
모퉁이순례단 | 11/1~11/10 (10일, 298만원)
(의료진/길모퉁이서포터즈동행, 일정의 출발시 별도문의)
가톨릭 이안문화사업단 **길모퉁이**
www.gil1004.com
055.264.4628 / 010.9876.5000

우리농 직매장 2호
이용시간 : 월~금 09:00~17:00
토 09:00~15:00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055.293.5605

가톨릭신문투어

- ▶ 10/7 유럽 수도원 순례 12일 399만원
- ▶ 10/12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58만원
- ▶ 10/15 파티마, 스페인, 루르드 12일 380만원
- ▶ 10/27 발칸반도 12일 365만원
- ▶ 11/16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원

02.2281.9070
www.cttour.org

기 타

- 꽃동네대학교 2020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보건·복지·상담심리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대학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
 사립대학 사회책임지수 총복 1위
 신입생 전원 꽃대상학금 지급
 내 집 같은 기숙사 신입생 100% 입사 가능
 모집학과 :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간호학과
 원서접수 : 9월 6일(금)~9월 10일(화)
 문의 : 043·270·0100
-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국내 입양 전문 기관**
 문 의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02·764·4741~3
 www.holyfcac.or.kr
-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시 신입생 모집**
의료보건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
 수시 2,676명 모집
 가톨릭지도자추천전형 40명 모집
 원서접수 : 2019년 9월 6일(금)~10일(화)
 입학상담 : 053·850·2580
- 양업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가톨릭 유일의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아시아 최초로 좋은 학교(Q.S) 인증
 문 의 : 9월 17일(화)~30일(월)까지
 모 집 : 전국 전지역
 문 의 : 043·260·5076



제30차 청년 성령세미나

일 시 : 9월 20일(금)14:00~22일(주일)16:00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대 상 : 청년
 참가비 : 9만 원 (경남 593-22-0355398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신 청 : 9월 11일(수)(참가비 입금순 40명)
 문 의 : 청년성령쇄신봉사회 myhs.or.kr
 010·9113·7062, 010·8864·7067
 파견미사 초대 9월 22일(주일) 14:00

■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부부나들이 피정**
 일 시 : 10월 19일(토)14:00~20일(주일) 17:00
 강 사 : 홍성남 신부,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이성호 박사, 이요셉 소장, 김미희 강사
 장 소 : 아론의 집
 회 비 : 1부부 15만 원(비신자, 냉담자 환영)
 신협 131-020-141399 천주교서울대교구
 준 비 : 미사, 수건, 치약, 개인컵, 편한 신발
 문 의 : 010·4204·1522

■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는 관광 및
 성지 안내와 함께 차량, 호텔, 팬션
 예약이 가능합니다.
 문 의 : 064·758·6476, 010·4566·6476



2차 청년교리 연수

일 시 : 9월 7일(토)13:30~8일(주일)14:00
 장 소 : 가르멜 기도의 집(진동 가르멜수도회)
 주 제 :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이다.'- 가톨릭 교리서 1편 2부 2장
 참가비 : 1인당 5만 원
 준비물 : 필기구(노트),
 미사 준비(봉헌금, 단정한 복장),
 묵주, 세면도구(수건), 텀블러
 신청마감 : 9월 1일(주일)
 문 의 : 010·4706·9736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기념 생명나눔·생명존중 작품 공모전

김수환 추기경님의 생명존중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이번 공모전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기 간 : 9월 30일 마감(웹하드 및 우편접수)
 분 야 : 포스터, 슬로건, 글짓기, 동영상,
 웹툰 (obos.or.kr 참조)
 주 관 : 한국평협,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문 의 : 02·777·2013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주제	문의
교 구	8월 26일(월) 19:00	월남동성당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박혁호 신부(미카엘)	박혁호 신부	010·5072·5612
창원지구	8월 26일(월) 19:00	반 송 성 당	사랑의 힘	두현자(율리아나, 의정부교구회장)	이영민 신부(베드로, 삼위일체)	010·9969·5340
진주지구	8월 26일(월) 19:30	옥 봉 성 당	자유 주제	이재열 신부(안드레아)	이재열 신부	010·9677·4224
청 년	매주(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 미사, 셋째주 :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9월 1일(주일) 10:00	서울돈암동 본부	010-9937-0901/ korvocation@columban.or.kr	
한국외방선교회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 성소국장 신부 010-8715-2846 / kmsvocation@daum.net			

<p>품격 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p> <p>10월 26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순례 12일 449만원 <small>KOREAN AIR</small></p> <p>10월 28일 터키, 그리스 순례 13일 399만원 <small>KOREAN AIR</small></p> <p>11월 11일 과달루페와 중남미 순례 19일 <small>AEROMEXICO</small></p> <p>▶ 출발 확정 · 전일정 공동경비포함 ◀ 분도여행사 02.852.8525</p>	<p>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p> <p>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p> <p>GCA 골프피팅 스튜디오 클럽/스윙/피팅 분석·맞춤 클럽 제작·기성클럽 피팅 클럽 수리·그립/샤프트/헤드/골프화 스파이크 교환</p> <p>마산회원구 봉양로9 온골프존빌딩 (신세계백화점 앞 삼각지공원 건너편) https://blog.naver.com/golfgca ☎ 055.282.1872 (18홀 72타) 김중환 안토니오 창원대학교 체육학 박사수료</p>	<p>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p> <p>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철 할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p> 	<p> 라파엘여행사</p> <p>◆ 10/4,11/4,11/2 이스라엘,오르단 10일 (289만원) ◆ 10/7, 11/7 이태리리우 9일 (279만원) ◆ 10/7 산타아고 13일 (395만원) ◆ 10/14,11/15 다낭성모발현지 5일 (129만원)</p> <p>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p>
---	---	--	---

1945년 8월 15일, 새로운 질서, 평화를 향하여



1945년 8월 15일, 이웃하는 두 나라 한국과 일본에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한 나라에는 해방의 빛이 비치고, 다른 한 나라에는 패전의 어두움이 드리웠습니다. 어느 '역사적 사건'이든 그 이면에는 언제나 배경이 있고, 그 배경은 광범하고 오래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한쪽에는 '기쁨과 희망'을, 다른 한쪽에는 '슬픔과

고뇌'를 안긴 1945년 8월 15일의 역사적 사건도 그렇습니다.

8·15의 직접적 배경은 제국주의의 무모하고도 위험한 팽창의 결과로서, 전 세계 수천만 명을 살상하고 사회를 초토화한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그 역사적 사건은 세계 질서 차원, 민족과 국가 차원의 광범한 영역(정치, 경제, 문화, 국제질서)에서 개인·집단적 삶에 깊고도 오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질서는 이른바 '동·서 냉전'의 시대로 재편되었습니다.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이 냉전의 전장에서 연합국 미국의 동맹국이 되어, 동북아 지역에서 외교 및 군사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중국의 팽창을 막는 미국의 최전선을 형성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한편, 군국주의 일본의 35년 폭압적 식민지배를 받던 대한민국은 비록 정치적으로는 해방되었으나, 동서 냉전의 틈바구니에서 분단과 한국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미·일과 함께 북·중·러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팽창을 막는 최전선을 형성하면서 '민족의 부흥과 통일'을 향한 험로를 걷게 됩니다. 그 이후 우리는 세계 질서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냉전의 양국 질서는 해체되고, 다극의 질서와 동시에 세계화의 길을 밟았습니다.

어느 변혁에도 그들이 있는 법이어서, 다극과 세계화가 낳은 그들은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고조되었습니다. 군사적 긴장과 충돌들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균형 역시 '세계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국의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민족(일국)주의'의 가치를 내세우고, 밖으로는 '패권' 다툼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위대한' 미국, 'EU 탈퇴'의 영국, '강한' 러시아, '급부상' 중국, '보통국가' 회복의 일본 등이 그렇습니다. 가히 '새로운 사태' '새로운 질서'라 할 만합니다.

역사적으로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 사법부의 식민 시대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대한(對韓)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한-일'의 갈등이 불거져 '선의를 모든 사람에게 걱정을 끼치는 형국에 이르렀습니다. 언어나 나라, 심지어 관습마저 빼앗겼던 지난 35년간의 어둠 속을 걸었던 한민족에게 최근 불거진 일본의 경제 제재는, 이 뜻깊은 해에 돌출한 새로운 폭력이며, 이는 과거에 저지른 불의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외면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직접적으로는, 일본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협의회회의 담화에서 밝힌 것처럼,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과 식민지 지배 책임과 관련한 현안 때문일 수 있습니다. '화해를 향하여', "한일 정치 지도자들은 긴장을 높일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과거를 마주하고, 미해결인 채 두어 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해결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도가 결실을 맺어 일본과 한국, 일본과 한반도의 신뢰와 우호 관계가 발전하고, 그것이 동아시아 평화체제의 실현으로 이어지도록"(2019년 8월 15일, 일본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협의회 회장 담화) 함께 뜻을 모아 기도하시는 일본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협의회회의 초대에 한국 천주교회는 형제적 사랑으로 일치하여 연대합니다.

그러면서 근원적으로는, '새로운 질서'와 '사건과 인류의 요구와 염원'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그 계획의 진정한 징표가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인간적인 해결'을 찾아야 할 교회의 소명(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 11항 참조)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잊지 않습니다. 선의의 양국 시민이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 도움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인류의 역사는 이웃 간의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나아가는 상생의 길을 요구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패전' 그 배경과 영향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오늘의 대한민국' '오늘의 일본', 그리고 오늘의 '한일관계'를 성찰합니다. 우리에게 '평화 통일'과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의 과업이 놓여 있습니다. 한일관계에서는 '새로운 질서'에 부응하는 올바른 길, '진리와 자유, 정의와 사랑'의 길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물론, 그 새로운 질서를 찾기 위해 언제나 요구되는 필수적 전제 조건은 '참회와 정화'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특히 교회는 오늘 성모 승천 대축일을 기념하며, 성모님의 신앙 고백(루카 1,46-55)을 그 '참회와 정화'의 거울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
100년 전 일제의 식민 통치에 맞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피 흘리며 죽어간 이들을
자애로이 품어 주소서.
또한, 저희가 티 없이 깨끗하신 어머니의 성심을 닮아
'용서합니다.' 하고 고백할 용기를 지닐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고,
이웃 나라와 평화의 연대로 하나 되어
마침내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필요한 은총을 빌어 주소서. 아멘.**

2019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서명)* 주교